

01 2015 vol. 362
www.mise1984.com

SINCE 1984 · Monthly Art Magazine

美術世界

AR 22

美術世界
2015년 1월

Cover Artist 이용휘
Special 민화대첩



9 771227 606504 01
ISSN 1227-6065

월간 미술세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0년도 우수콘텐츠 잡지
제1회 문화관광부선정 우수 잡지, 제39회 잡지의 날 대통령상 수상



21세기 이 땅에서 미술로 사회적인 화두를 던지는 참신한 방법

안창홍의 **들** / 2014.11.28~12.10 / 더페이지갤러리

글 | 정윤희 경기도문화의전당

아픈 현대사가 드리운 그림자와 상처가 분명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아픈 삶을 대변했던 민중미술의 종적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오늘날, 적잖은 연배에 이르러서도 한결같은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는 작가의 존재는 우리에게 실로 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불어 그간 다소 센 이미지의 인물화를 그렸던 안창홍이 이번에는 맨드라미를 그렸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맨드라미들을 통하여 민초들의 고통을 더욱더 강렬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경탄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작품들은 숙성된 리얼리즘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각적이고 미학적인 담론의 물꼬를 텃다고 생각한다.

우선 안창홍의 **〈들〉** 연작들은 대상을 인물이 아닌 꽃으로 취했다 하더라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리얼리즘의 정신을 지니고 있다. 캔버스 속의 맨드라미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하여 민초들의 희노애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한낱 미물에 불과하더라도 순간을 불태우고도 남을 강렬함을 통하여 약한 듯 하지만 실로는 강인한 민초들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로써 작은 텃밭에 심겨진 들꽃처럼 우리 곁에 존재하는 무수한 이들의 실상이 신랄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들** 연작에는 작가가 직접 심고 가꾸었다는 맨드라미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맨드라미들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그려놓았는지 안창홍의 작품은 쿠르베나 카라바조가 관객들에게 선사하는 것과 비슷한 충격을 선사하고 있다. 대상이 구불구불 곁이 지고 금방이라도 타오를 것 같은 붉은 색 강렬함을 뿜으로써 (작가의 말마따나) 고깃덩어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맨드라미이기 때문이다. 형태를 심하게 왜곡시키거나 추상화하지 않았

지만 유화를 두텁게 바르고 나이프로 처서 돌기를 만듦으로써 맨드라미가 지닌 물리적인 속성을 극대화시켰고, 이로써 맨드라미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서 일종의 드라마가 연출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비유법이 더욱 사실적일 수 있다. 일명 ‘대놓고 까기’, ‘돌직구’가 일종의 트렌드로 여겨지고 있는 시점에서, 회화적 표현의 수위에 있어서도 거의 제한이 사라진지 오래 된 시점에서(물론 정치적인 제한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재해 있는 많은 화두들을 세상에 던지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돌직구’로 오고가는 무수한



시계방향

안창홍, **〈들, at the garden〉**, 캔버스에 유채, 136x346cm, 2014

안창홍, **〈들, at the garden〉**, 캔버스에 유채, 60x30.5cm, 2014

안창홍, **〈들, at the garden〉**, 캔버스에 유채, 60x30.5cm, 2014

말들 속에서 진정한 실체를 포착할 수 있는 참신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표현 방법 말이다. 때때로 그것은 단시간에 적들을 동요시키지 않는 요상한 세련됨을 필요로 하며, 더불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할 수 있는 매력도 지녀야 할 것이다. 수많은 풍경화 속에 등장하곤 하는 맨드라미를 안창홍이 그렸다는 사실 자체가 어떠한 신선함을 주듯이 말이다. 거짓을 말할 때에도 이와 같은 교묘한 수법들이 난무하는데, 하물며 본래 그 속성이 오묘한 '진실'에 관해서라면 더 영리해야 하지 않을까.

한편, 안창홍이 이번 전시를 통하여 선보인 작품을 통해서 '감각적 차원'의 담론의 장이 펼쳐졌다고 생각한다. 화폭을 빼곡하게 채운 유화 물감 돌기는 작가의 제스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캔버스를 수없이 두드렸을 그의 움직임이, 그리고 맨드라미를 심고 가꾸며 텃밭을 다졌을 그의 움직임이 거친 표면과 돌기들을 통하여 포착된다. 어쩌면 그것은 분노와 회한의 몸짓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대상의 입장에서 자신의 존재를 더욱 다지게 되는 일종의 폭력적인 자극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처럼 작가의 제스처는 그림 속 대상과 작가가 주고받는 힘의 역학 관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맨드라미가 비유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대상, 즉 대중들의 삶이 바깥세상과 맺고 있는 물리적인 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 작품은 수용자가 맨드라미의 형태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살'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화폭을 가까이 들여다보는 순간 맨드라미는 거칠게 다루어진 물감 반죽이 되어버리고 시각적으로 접근을 시도했던 우리의 감각은 자연스럽게 '촉각'으로 인도된다. 비록 이 글의 서두가 리얼리즘에 대하여 장황하게 기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번 작품들이 새로운 방향의 담론들을 향하여 다각도로 열려 있다는 점을 제안하는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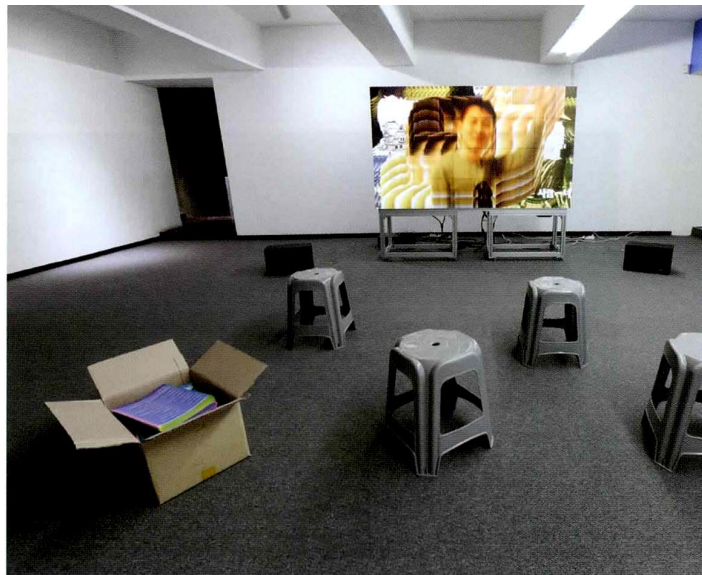


안창홍, 〈꽃들, at the garden〉, 캔버스에 유채, 54x73cm, 2014

— 홈비디오 : 되감기, 빨리 감기, 멈추기

베이포-X와 홈비디오 강정석 개인전 / 2014.11.14~12.14 / 인사미술공간

글 | 이주원 인턴기자



한 쪽방 촌에 홀로 거주하던 노인이 숨진 지 5개월 만에 발견되었다거나, 부산에서 혼자 살던 60대 할머니가 사망한지 5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일명 '고독사'에 관한 기사들을 읽은 일이 있다. 포털 검색에 '고독사'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뉴스 페이지에 참전 오백여 건의 기사가 쏟아졌다. 대개 그러한 기사들은 '그들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와 같은 코멘트로 마무리 되었다. '큰 충격을 줬다.' '큰 충격을 줬다.'... 수 천여 기사를 통해 머릿속에 단 한 문장이 반복해서 입력됐다. 충격은 경험이었 고 경험은 그 반복을 통하여 복제되었다.

그 때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한 번의 복제가 일어날 때마다 해당 사건의 무게감이 조금씩 덜어졌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충격적 사건이 쪼개져 인터넷, 지면, 그리고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를 통해 무한히 복제되고 동시다발적으로 내게 전송될 때 끝내 그 충격은 충격이 아닌 것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그 충격적 사건은 삶 속에서 점점 무뎌져 나가는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건이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예술작품의 기술적 복제가능성의 시대에서 예술작품의 아우라가 위축 되듯이 매체의 동시공간적 복제 가능성이 당연해진 현재 경험하는 것에 대한 모든 '분위기'는 붕괴되어 버렸다. 그리고 강정석은 이 지점을 지적한다. 강정석은 전반적인 작업 안에서 복제와 반복을 통하여 붕괴된 아우라와, 복제의 획일성을 통해 상실된 개인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상기시킨다.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동시대 개인들의 무력감을 조망하며, 그 사회적 리얼리티를 수집해온 강정석은 주변 인물과 본인이 속한 사회를 관찰하며 언제나 다른 것으로 감쪽같이 대체될 수 있는 삶의 불완전성에 주목한다.

강정석은 촬영대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이며 전체 흐름을 구성하는 연출가이고 또한 편집자인 동시에, 해당 사건의 소극적 개입자이기도 하다. 그가 조성하고 주최하는 공간에서 그 스스로가 연출자로서 얼마나 개입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 시선의 거리감이다. 그의 렌즈는 물리적으로는 관찰 대상과 가깝게 붙어있으나 감정적으로는 멀찍이 떨어져 있다. 1층 전시장, 상자 안에 쌓아 놓은 팜플렛 오브제들이 다소 부